



윤 리 경 영

대기업편1_ CJ나눔재단

온라인을 통한 투명한 사랑 나눔, 도너스캠프 (Donors Camp)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인 ISO26000이 2009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새 사회공헌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CSR활동을 위해 기업마다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전담팀을 만들고 홈페이지엔 사회공헌활동을 알리는 메뉴를 만들어놓고 있다. 이런 속에서 이제는 사회공헌이 '누가 어디에 얼마를 기

부했느냐' 혹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보다 '누가 얼마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활동을 펼치느냐'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공헌을 통한 세상 바꾸기'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활동의 하나가 CJ나눔재단의 도너스캠프(Donors Camp)다.

도너스캠프는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나눔터'다. '쉽고 즐거운 나눔'을 모토로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방법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등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제안 받고, 후원자들이 그 중에서 원하는 제안서를 선택해 기부하는 형식이다.

지역아동센터는 30여년 전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헌신으로 지역사회의 공부방을 지켜온 민간 비영리 공부방 실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오던 민간단체들의 요청이 합쳐져 정부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시설이다. 그룹홈은 가족 해체로 가회적인 보호가 필요해진 아이들을 소규모 보호형태로 돌보고 있는 시설. 보통 7~30인 미만의 소규모라는 특성과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너스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는 학습지도, 예술, 현장 체험, 체육, 심성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지역, 기간에 따라 돕고 싶은 교육 제안서를 쉽게 찾고 기부할 수 있다. 기부와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엔 후원에 대한 감사노트, 학습 효과에 대한 메시지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CJ나눔재단은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운영한다. 한 후원자가 공부방 프로그램에 1,000원을 후원하면 CJ나눔재단이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 또 음식을 나누는 '푸드뱅크',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문화 나눔' 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 www.donorscamp.org